

설익은 연정 ... 민주 '하與가' 국민의당 '單심가'

보수 야당 재편 가속화 속 연대 논의 활발

민주, 입법·예산 상시 논의 '2+2 협의체' 만들어야

안철수 대표 "당 존립기반 흔들기 ... 말장난 멈춰라"

보수 야당의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성사되거나 바른정당 통합 파가 집단 탈당, 한국당에 합류할 경우 원내 제1당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어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여소야대(與小野大)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협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국민의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넘어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협치 카드를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치 방식을 놓고는 최근 '연정론'까지 돌출적으로 거론됐으나 현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는 게 두 당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에따라 두 당은 내부 의견 조율 등을 거친 뒤 국정감사 이후 입법과 예산 처리를 놓고 공조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양당 모두 당론으로 밝힌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협의의 골조를 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라든가 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 등도 두 당간 협력 협력이 가능한 부분으로 꼽힌다. 특히,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두 당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앞서 두 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 과정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사업 예산을 일부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협치를 견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민의당과 입법이나 예산 문제를 상시로 논의할 수 있는 틀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대화 채널인 '2+2 협의체'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재편이 현실화될 경우, 교섭단체가 붕괴된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 연대를 통해 지방선거 대승을 이끌면서 새로운 시대를 견인한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연대나 연정이 결국엔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강력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3일 "정부·여당이 일관성 있는 게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하는 것"이라며 "장난질을 멈춰라"고 강력 반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연정이나 협치를 할) 의사도 없이 국민의당을 떠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여소야대의 지형 속에서 국민의당과의 협치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안 대표와 당 중진 간 만찬 회동 때 민주당과의 연정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한 발언이었다.

안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연정한 사례가 있는지 우선 묻고 싶다"며 "외국의 경우 연정은 정권 초기에 시작하는데, 지금은 내각이 거의 다 꾸러져 있고 정책 방향도 나와있는 상황에서 (연정은) 기능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치 제도화에 대해서도 "정식 제안받은 게 없다"며 "계속 말장난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공학적인 연대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협치에 방점을 두어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분위기는 좋는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에서 열린 노원 탈출제 개막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협치를 만들어 새로운 나라 건설 과제 풀어나가자”

문대통령, 민주 지도부 만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들과 만찬을 갖고 “국회의 구조가 여소야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권당의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여야 협치의 틀을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5개월간 당이 잘해왔고 당의 단합된 모습에 국민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하다”며 “당의 단합을 넘어 당·청 간 일체감, 유대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이 단합되고 분열하지 않아서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다”며 “이것이 높은 (국민) 지지의 원천이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에 “대선에서 많이 기여하신 분들 중에 국무위원으로 가 공적이었던 (사고 지역위원회의) 시도당 위원장이 오늘로써 완료됐다”며 “정권 교체에 헌신한 시도당위원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공로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결정했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에서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장은 “국방부 산하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러져 제한적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증언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특조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과정을 보면서 검토하자”고 말했다.

또 “내년이 4·3사건 70주년인데 대통령이 꼭 참석해달라”는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의 요청에 문 대통령은 “광주 5·18, 4·3, 부마항쟁 등 역사적인 행사에 정부도, 당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인기까지 매년 (행사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안된다면 격년으로라도 참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은 높은 당 지지율과 권리당원 수가 최근 8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사실이 언급되면서 회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산하 공사·출연기관 부패 발생 땐 기관장 연임 못한다

공사 등 경쟁력 강화 대책

기관 운영비도 10% 감액

전남도 산하 공사·출연기관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기관장은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기관 운영비도 최대 10%까지 감액한다.

이는 최근 공사·출연기관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부정과 잡음이 잇따라 불거지자 전남도가 채택을 빼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도는 15일, 산하 공사·출연기관의

투명 경영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고 대외적으로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패 발생 기관의 행·재정적 제재 강화, 인사·회계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장치 마련, 부패 관련자의 엄정한 처벌 및 청렴 관련 교육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패 발생 기관의 기관장 연임 조건이 충족돼도 연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단계적으로 최대 10%까지 운영비를 감액하고, 경영 평가 때 최하

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기관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직원 채용 시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 비리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인사·계약·회계 분야 직원은 2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청렴 신문고’를 설치해 부패행위나 불법 행위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양정 규정의 세분화, 중요 부서 보직 제한, 성과급 미지급 등 부패 행위자와 상급자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청렴교육

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사와 출연기관의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 출연기관 업무편람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사·출연기관의 청렴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도록 유도, 도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화향기 가득한 함평으로

2017 국화향대제전

10.20.금 ~ 11. 5. 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문의 |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Tel. 061)320-1784 www.hampyeong.go.kr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국화동호회

Imagine your Korea